

엄마의 사랑만큼 포근한 한민족의 사랑 가득한 우유를 북쪽 어린이에게



민귀영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
(청소년경제연구소장)

남과 북의 여러 행사가 진행
된 바 있고 앞두고 있는 2005
년 한반도의 여름, 우리에게
그 더위를 식혀줄 통일의 문도
서서히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
라 기대합니다.

6.15 공동성명 5주년 행사는 북한에서,
광복 60주년 8.15행사는 남한에서 사이 좋
게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 이제 통일의 준
비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 시기상조의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겠죠.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북
한주민들의 부족한 식량과 힘든 생활소식
을 접하면 접할수록, 딸을 키우고 있는 주
부이자,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아픔이 더합니다.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일컬어지는
우유는 마시면 마실수록 몸에는 이로온 간
편한 식품입니다. 그 본연의 가치만으로
부족한지 슈퍼와 매장에는 특유의 영양을
내세우는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골라먹는 재미는 사치인 듯, 양
이 극히 모자라서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재 2005년 6월의
실정인 것입니다.

뼈에 중요한 칼슘을 보충해
주기에 충분한 '우유'는 앞으
로 북한 어린이들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뼈를 구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 남
한의 우유가 남아돌아 북한으

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사랑
과 희망을 듬뿍 담아 북한에 보낸다는 생
각이 맞을 것입니다.

북한과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정치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하얀색 우유처럼
그저 북쪽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라는 문제만을 먼저 생각하는 '통일우유'
이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통일이 되어 남
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씩씩하게 뛰어놀고 백두산과 금강산, 한
라산을 기운차게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역시 건강한 신체가 받쳐 주어야 합니다.

용기 있게 이런 훌륭한 일을 진행하시
는 한국낙농우유협회와 굿네이버스 측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협조를 해
주시는 농림부,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한
국유가공협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뜻 깊은 일에 저의 작은 힘이 앞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더하겠습니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이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뜨거운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통일이 된 후 남북의 미래 꿈나무들이 함께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장면은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북한과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정치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하얀색 우유처럼 그저 북쪽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제만을 먼저 생각하는 ‘통일우유’ 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제약받아선 안 될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의 전개

우리가 왜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허탈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북한 정권과 체제가 싫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 최근 언론과 주요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의 영양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군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2004년의 자료에 의하면 6세 이하 어린이 중 심각한 성장장애나 만성 영양불량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37%에 해당하며 특히 함경남도과 양강도의 경우에는 각각 47%, 46%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전체 어린이의 23%가 저체

중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7세 어린이의 신장 및 체중을 비교해 보면 남한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에 비해 신장에서는 약 20센티가 더 크고, 체중에서도 약 10킬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남자 어린이의 과체중과

비만 발생률이 약 40%를 넘어서고 있고, 또 여자 어린이의 과체중과 비만 발생률 역시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와 어린이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모체의 영양상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세 이하 어린이의 어머니를 조사한 결과 약 32%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고, 또 혈액검사에 응한 어머니 중 35%가 빈혈증상을 보였다고